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0년 3월 15일
제 37 호

• 발행인 : 차인태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070-7501-3842

정기 총회 6월로 연기, 정확한 날짜는 카톡방 공지 예정

코로나19 사태로 회원 건강 지키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차인태(전 MBC) 회장

코로나19 확산세에 회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나운서클럽(회장 차인태)이 사상 초유로 정기 총회를 연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채영신 사무총장은 2월 23일, 전체 카톡방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요즘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3월 5일 예정된 정기 총회는 6월로 순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찍이 실천한 셈이다. 아나운서클럽 정기 총회는 추후 카톡방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월 29일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3월 초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다. 각자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작은 모임은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4월 15일 총선 출마 아나운서들은 누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박성준 한준호, 미래통합당 배현진 최대현



고민정



박성준



한준호



배현진



최대현

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다. 한준호 회원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MBC 아나운서로

아나운서 출신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전 KBS) 회원이 서울 광진을, 박성준(전 jtbc) 회원이 중구·성동을, 한준호(전 MBC) 회원이 고양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배현진(전 MBC) 회원이 2018년 보궐 선거에 이어 서울 송파을에, 최대현(전 MBC) 회원이 경기도 파주를 공천을 받았다.

고민정 회원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고 그해 5월 청와대에 입성,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통령

근무했고, 2018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청년 창업과 도시 재생 활동을 해왔다. 박성준 회원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KBS대전 근무 후 jtbc로 이직해 보도 총괄 아나운서팀장을 지냈다.

배현진 회원은 2008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 2014년 기자 전직 후 20018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서울 송파을 보궐 선거에 출마했다. 최대현 회원은 2000년 부산민방, 강원민방을 거쳐 2002년부터 2018년까지 MBC 아나운서에 이어 펜앤드 마이크(대표 정규재) 방송제작담당 부장으로 활동했다.

코로나19 극복에 나선 전현직 아나운서들

신은경 성경 낭독 유튜브 개설, 광영신 남양주 마을 방역 소독 조수빈 손소독제, 전현무 1억, SBS 김선재 1,000만 원 기부

아나운서들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은경(전 KBS) 운영위원은 3월 5일, 성경 낭독 유튜브 채널 <신은경 TV-성경 읽는 신 권사>를 개설했다. 신 회원은 “예배도 여의치 않은 요즘, 많은 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길 바라며 시편 낭독으로 시작했다. 주신 달란트를 헛되지 않게 쓰게 되어 참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광영신(전 CBS) 회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분회장으로서 3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 방역 소독에 나섰다. 하루종일 마을회관, 노인정, 놀이터 등을 소독하며 밝은 사회, 건강한 마을이 되기를 기원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예방용품과 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채널A <주말 뉴스> 앵커이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친선대사인 조수빈(전 KBS) 회원은 2월 25일, 스포츠 화장품 브랜드 파워플렉스와 함께 아동 양육 시설에 손소독제 6,000개를 기부했다. 대구 출신 김선재 아나운서(SBS)는 27일,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희망브리지)에 적금을 해약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김성주(전 MBC) 회원은 28일, 5,000만 원 상당의 방호복과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기부했다. 허일후(MBC) 아나운서는 29일, “회사원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습니다만,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라며 희망브리지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 올 1월, TV 조선을 퇴사한 이하정(전 MBC) 회원은 3월 2일 극동방송이 실시한 성금 모금 특별 생방송 소식을 듣고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같은 날 KBS 대구에 파견되어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했던 전현무(전 KBS) 회원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한 데 이어, 3일엔 이혜성(KBS) 아나운서가 사랑의열매에 마스크 1,000장과 휴대용 손소독제 1,000개를 기부했다.

한편 6일엔 축구선수 박지성 김민지(전 SBS) 부부가 피해 아동 가정 긴급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후원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신은경



마을 방역 소독 중인 광영신 회원



박지성·김민지 부부



조수빈



김선재



김성주



허일후



이하정



전현무



이혜성

1960년에 태어나 2020년 오늘까지,
지난 60년 간의 도전 속에서
아주는 행복을 배웠습니다.

60세의 지혜를 더한 20대의 젊음으로,
아주는 또 다른 혁신을 꿈꾸며 새롭게 태어납니다.

AJU 60th ANNIVERSARY
We're still Twenty

아주산업 브이셀 아주지오텍 공명해운 아주베트남 아주캄보디아 아주미얀마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모티스
아주B투자 아주호텔엔리조트 아주호텔서교 아주호텔제주 아주프론티어 아주큐엘에스 엔터플름 아주복지재단

ARTWORK KIMU STUDIO 키우 스튜디오는 '특별한 발상'을 가진 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니크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 TF팀 제3차 회의 사례 조사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명, 대상, 구성 등 제작 관련 논의



코로나19도 우리의 열정을 꺾을 수 없다

2월 4일 회의에 참석한 이현우, 차인태, 황인우, 원종배, 채영신, 김상준, 김성길 위원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국어 교육 TF팀의 제3차 회의가 2월 3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들해에서 열렸다. 코로나19를 염려해 '필히 마스크를 쓰고 오라'고 당부했던 이날 회의에는 김상준, 김성길, 원종배, 이현우, 차인태, 채영신, 황인우 회원 등 7명이 참석해, 김상준 위원장이 미리 제시한 안건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상준 위원장이 특별히 본인의 저서 「아나운서」도 선물하고 식사도 제공한 가운데, 유튜브의 기획안을 도출하기 위해, 1. 제목 2. 방송 내용 3. 제작 방법 4. 방송 시간 5. 제작자 6. 출연자의 폭 7. 제작물의 업로드 방법과 대표 회원 8. 저작권 9. 제작비 10. 촬영 편집 담당자, 그리고 그밖의 사항 등에 대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한 알찬 시간이었다. 차인태 회장이 유튜브와 관련해 구독 ranking과 수익원 마련 등 밀도 있는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원종배 위원은 딸이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유튜브를 바탕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작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어교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말하기 강의를 해온 이현우 위원이 채널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청 대상과 요일별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제안했고, 황인우 위원이 제작비 마련 방안, 전문가 용역 등 제작 관련 소스를 제시했다. KBSN 전문위원과 50+미디어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김성길 위원이 새롭게 합류해 동영상 제작의 여러 방법론과 문제점을 분석했고, 실태를 참고하고자 이튿날인 2월 4일 오후 2시부터 50+코리아미디어협동조합 한정주 이사장과 함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서유석 TV> 제작 현장을 방문해 참관하기도 했다. 한국어 연구 TF팀은 이를 토대로 정기 총회에서 구체적인 시안 발표 후 정례 모임에서 파이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총회와 함께 3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제4차 회의도 순연된 상태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수칙



- ▶ 비누나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고, 오염된 것을 만진 후엔 얼굴을 만지지 않기
- ▶ 소독제로 주방이나 사무실 책상 등을 정기적으로 닦기
- ▶ 보건 당국이나 WHO처럼 출처가 믿을 만한 곳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얻기
- ▶ 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을 경우 여행을 자제하기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소매나 휴지에 한 뒤 손을 바로 씻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뚜껑 닫기
- ▶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을 경우 사람이 많은 곳 피하기
- ▶ 만일 몸이 좋지 않을 경우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진에 전화하기
- ▶ 아플 경우 집에서도 수면과 식사를 따로 하고 식기도 따로 사용하기
- ▶ 호흡 곤란 시 의료진에 전화해 바로 치료받기
- ▶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있을 경우 일터와 학교, 종교 모임 같은 곳에서 건강을 지킬 방법 논의하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월 28일 발표

| 알림 |

고맙습니다

연회비 내신 분 (3월 10일까지 입금순)

연회비 납부자

정흥숙 오미영 백연숙 최평웅 오영실 광영신 방남순 엄복영 임택근 김상근 신은경 김성길 최창섭 남궁미 문무일 김진형 이규향 윤희자 이병열 성선경 박경희 김유한 원창호 이후재 윤영중 최윤락 이명희 조일수 표영준 안주희 변순복 이세진 권혁화 차기정 이명순 정영희 반주원 최선규 전옥수 김채영 박민정 이형균 민병연 김규홍 채영신 윤지영 유지현 황인우 이보길 이현우

후원금 (2019년 12월 11일 ~ 2020년 3월 10일)



광고 유치



차인태(전 MBC) 아주산업 200만 원

축하합니다

문예정(febc) 2월 21일 득남
정지원(KBS) 2월 13일 득남
조태환(febc) 1월 29일 득남
김슬애(cpbc) 2019년 12월 20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안나경(jtbc) 2월 26일 조부상
함윤호(KBS전주) 2월 21일 모친상
박현우(KBS 한국어진흥원장), 엄지인(KBS) 2월 19일 모친상, 외조모상
김봉구(전 HLKZ-TV) 2월 9일 본인상
임택근(전 MBC) 1월 11일 본인상
윤인구(KBS) 2019년 12월 31일 장모상

수고하셨습니다

장봉구 2월 29일 제주febc 퇴사
조은유 2월 17일 OBS 퇴사
박은영 1월 31일 KBS 퇴사
박선영 1월 31일 SBS 퇴사
오유경 1월 31일 KBS 퇴사
박성준 1월 15일 JTBC 퇴사

한국 아나운서의 전설, 방송의 큰 별이시다

임택근 고문 1월 11일 향년 89세로 영면, 상주는 가수 임재범
제3대 회장 맡아 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 참여자 범위 확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아나운서클럽 제3대 회장을 지낸 고인은 아나운서동우회에서 아나운서클럽으로 개칭하고 현역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2008년 버스 낙상 사고 후 휠체어 신세를 지면서도 클럽 모임엔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아나운서 직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고인은 1932년 서울에서 출생, 휘문고 졸업,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6.25 동란 중인 1951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황우겸, 고 강찬선, 이수열, 정순형과 함께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뉴스는 물론 올림픽 등 스포츠와 의식 중계, <스무고개> <노래 자랑> <퀴즈 열차>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진행자 이름이 들어간 공개방송 <임택근 모닝쇼>(사진) 등을 진행하며 아나운서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4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여자농구대회 한·일 결승전 승리 후 선수단과 함께 경무대(현재 청와대)로 초청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빨리 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중계를 하나? 용하구먼!” 하면서 극찬하고, 남산 지날 때면 KBS 사옥에 들러 만나고 갈 정도로 고인을 아꼈다고 한다.

그 후 KBS 아나운서실장을 거쳐 1964년 MBC로 이직해 1980년 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를 끝으로 방송을 떠나, 한국종합광고 회장, 대한고용보험 상무, 코스모스악기 상임 고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연세대총동문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1962년 방송문화상, 1977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08년 「아나운서 임택근」(김민환, 나남)이란 책이 발간되었고, 2009년 한국방송 영상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방송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KBS 입사 초기 뉴스 스튜디오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자 이름을 내건 <임택근 모닝쇼>에서

고故 임택근 고문 추모 카톡방 조사 모음

- 차인태(전 MBC):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아득하고 그리운 옛 추억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느낌입니다.
- 박찬숙(전 KBS): 전설의 선배님. 생전처럼 하늘나라에서도 큰 별로 빛나실 겁니다.
- 김재익(전 KBS): 대한민국 방송사에 길이 남을 큰 별! 천국에서도 아나운서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 광영신(전 CBS): 아나운서의 표상, 그 음성 생생한데... 가시는군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후배들이 가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 권혁화(전 MBC): 언젠가 MBC 아나운서 OB 모임에 오셔서 까마득한 후배를 격려해 주셨는데... 그때는 아주 건강하시고 품도도 당당하셨지요. 아나운서의 표상으로 길이 남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시간 내시어 모임에도 자주 나와주셨습니다. 부족한 후배로서 대선배님의 훌륭한 면모를 이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 김상준(전 KBS): 방송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대선배님께 거듭 옷깃을 여밉니다.
- 전우백(전 KBS): 인천 장기범 선배님 영결식에서 원고 없이 15분여의 추도사를 통하여 참석 후배들의 눈물을 훔치게 하셨던 선배님!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누가 있어 그 낭랑한 음성으로 국민을 위로할까요. 고이 가소서.
- 강미란(전 KBS, 미국 시애틀): 연세대 동문회관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여성 아나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김규홍 선배님과 함께 저에게도 여성 총무 일을 주셨지요. 열정적이고 자상하셨던 대선배님! 아나운서의 큰 별이 되어 저희 후배들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 김병래(전 KBS): 어려웠던 시절,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던 분으로 영원히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후배들을 지켜보며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십시오. 모든 사연 내려놓으시고 이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박민정(전 MBC): 대선배님, 이제 편히 쉬세요! 한 번 더 찾아뵈었으면 했는데...
- 이후재(전 KBS): 쿵! 쿵! 한국방송의 청룡 임택근 아나운서님! 이웅평 소좌 미그기 귀순 서울 시민 환영대회 사회자로 평양 하늘 울렸던 함성 아직도 쟁쟁한데,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에서도 조국을 위해 포효하소서!
- 고창근(전 MBC): MBC와는 각별한 관계였던 대선배님 이셨습니다. 일화가 많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 중계방송 하실 때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중계방송의 거목이신 어른신이 뉴미디어시대에 첫 데뷔한다고 떨림과 설렘 속에 며칠 밤잠을 설쳤다고 하셨지만, 중계를 부탁드리자 과거의 명성대로 새까만 후배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는 횡포(?)까지 보이셔서 스테프 모두를 긴장시키셨습니다. “처음 마이크를 잡을 땐 떨렸는데 시간이 지나니 너무 짧더라. 후반전 통째로 주지 너무 아쉬워. 하하하!” 하시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선배님은 스포츠 방송의 거목이셨습니다. 이제 천국에서도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장을 여시면 저희도 선배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선배님! 이 땅에서 방송을 통해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고통없이 이 땅에서보다 더 편하고 영광의 삶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윤성원(전 KBS): 국민에게 용기와 위안을, 젊은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셨으니, 이제 천국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황인용(전 TBC): 중학 2년 때 처음 들던 신비스런 라디오, 그때부터 각인된 임택근 아나운서 음성! 방송 역사와 그리운 추억을 영원히 남기고 가신 대선배님!
- 김주혜(전 KBS): 생전의 그 모습, 멋진 음성 그립습니다.
- 이정부(전 KBS): 아나운서의 자부심을 대신했던 이름, 임택근 대선배님! 하늘에서도 무지개 같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 박용찬(전 MBC, 미국 워싱턴): 저희 방송 인생의 은인이시고, 특히 저의 자서전에 서문도 써주셨는데 가시다니요! 생전에 문병을 해야 했는데, 통탄스럽습니다.
- 문무일(전 MBC): 신생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에서 언제나 당당하셨던 큰 어른께서 떠나셨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옷깃을 여미며 남기신 흔적들을 추모합니다. 아나운서 임택근宅根! 그토록 익숙했던 그 이름, 역사를 따라 멀리 떠나셨습니다! 황우겸 선배님, 강영숙 선배님을 비롯한 남아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민기지 않은 모습으로 영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차인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주방송인협회 김봉구 명예회장 2월 9일 향년 89세로 영면
1956년 한국 최초 TV방송 아나운서, 미국서도 한국어 TV 시작



고인은 1932년 서울에서 출생. 경북고, 동국대 정치학을 졸업하고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인 HLKZ-TV 아나운서 공채에서 유일하게 선발되어 방송에 입문(사진)했다. KBS에서 이직한 서명석, 최청자 아나운서 등과 함께 뉴스, 인터뷰, 취재는 프로그램의 아나운스먼트나 사회 등 1인 2, 3역을 했다. 1959년 2월 화재로 방송사가 문을 닫은 후 1961년 KBS TV가 개국하자 이듬해 프리랜서로 발탁되어 <TV 그랜드쇼> <가요퍼레이드> <홈런 퀴즈> 등의 MC를 맡았다. 1967년 TV 연출 공부를 위해 도미渡美 후 1972년 4월 LA에서도 최초로 한국어 TV 방송을 시작해,

1984년 KITN-TV 교육방송 뉴스 캐스터로 활약했다.

고인은 노년에 서예에 입문해 2008년과 2010년 한국 민족서예대전에서 각각 예서체와 초서체 작품(사진2)으로 특선에 오르는 등 서예가로도 명성을 떨쳤다. 정영호(전 KBS) 미주 편집위원은 “한평생 방송 외길을 걸은 김봉구 회장은 정말로 방송을 사랑하셨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지키는 것이 아나운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아나운서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분이셨다.”라고 추모했다.



동년배 두 분의 명복을 빌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회 | 원 | 동 | 정

클럽 회장단과 동아제약 강신호 명예회장 신년 간담회 광고와 기념품 협찬, 천안공장 견학 등 후원에 감사



아나운서클럽 이계진 부회장, 박민정 감사, 채영신 사무총장, 김규홍 부회장, 황우겸 고문, 차인태 회장, 동아제약 강신호 명예회장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나운서클럽 회장단이 지난 1월 2일 (주)동아제약 강신호 명예회장 초청으로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 오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구순九旬을 넘긴 강신호 명예회장과 황우겸 고문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그동안 수차례 광고와 기념품 협찬은 물론 천안공장 견학 초청 등 아나운서클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동아제약에 감사를 표했다.

60여 년에 걸친 황우겸 고문과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의 두터운 친분으로 이루어진 신년 간담회에는 아나운서클럽 황우겸 고문, 차인태 회장, 김규홍·이계진 부회장, 박민정 감사, 채영신 사무총장과 동아제약 측에서 정재은 상무, 김정수 과장 등이 배석해, 유대를 돈독히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이후재 감사네, 설날 맞아 경기도 장흥 방문 아나운서클럽 초대해준 아트밸리에서 눈꽃축제 즐김



크라운해태제과가 작년 10월 아나운서클럽을 아트밸리에 초청한 데 이어 겨울철 눈꽃축제가 맞춰 눈썰매장에 무료로 초대해주었다.

이에 이후재(전 KBS) 감사 일가가 설날인 2020년 1월 26일 아트밸리를 방문해 임수호 이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멀리 인도와 홍콩에서 100여 명의 관광객도 찾아왔는데 눈이 녹아서 아쉬웠지만, 아이들처럼 눈썰매를 타며 웃고 즐긴 그날의 감흥을 시로 읊었다.

아트밸리

오밤중은 나의 비밀 공작실
수십 년 소나무와 돌맹이를 주물러도
노래하는 종달새 하나 빚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백지 위에서 말모이를 뒤지고 있다
양주 고을에 핀다는 눈꽃을 만나러
설날 장흥아트밸리로 세배를 갔다
핑귤 낙타 기린 까치가 왈츠를 연주하고
우리에게 눈팔매를 던져 준다
나는 얼른 형겅주머니에 주워 담았다
그들은 어서 눈썰매장으로 올라가라고 외친다
얼굴이 다른 다문화가족들 뒤에 줄을 섰다
200미터 슬로프가 순식간에 우리를 이동시킨다
하늘에서 눈나비가 날아드는 꿈길이다
내일 오밤중엔 눈참새와 만나겠구나

이후재

최고령 위진록 회원, 신간 <오래된 출장> 홍보차 고국 방문 “정겨운 클럽 후배들 만난 시간이 내게 격려이고 위문이었다”

위진록 회원이 여섯 번째 저서 <오래된 출장> (모노폴리) 홍보차 2월 12일 귀국해 29일까지 서울에서 머물렀다. 북한의 남침과 서울 수복 소식을 처음 알린 역사의 증인으로서 2017년 6.25 발발 67주년 행사에 초청받아 모국을 방문한 지 3년 만이다.



위 회원은 1928년 황해도 재령 출생으로 1947년 서울중앙방송국 KBS에 입사한 최고령 아나운서지만, 신간을 언론 매체와 시민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홍보 활동을 벌였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고, 시청 앞과 덕수궁 돌담길 등지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고발하는 뜨거운 외침’이라는 광고판을 목에 걸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주기도 했다.(위 사진)

또 황우겸 고문 등 아나운서클럽 회원을 비롯해 KBS 기자 출신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평양사범 동문인 한림대학 신인섭 교수, 작곡가 이진용, 음악 평론가 이상만, 한국시인협회 윤석산 회장 등을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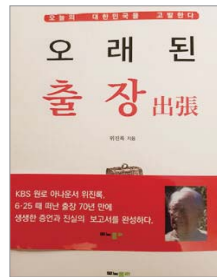
위진록 회원은 “사무엘 올만의 시 ‘청춘’에서 청춘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듯이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으로,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이 잘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3개월간 부지런히 책을 썼다. ‘코로나19’ 탓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2월 23일 박민정 감사의 자제 결혼식 참석(아래 사진)을 비롯해 정겨운 클럽 후배들을 만난 시간이 내게 격려이고 위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송현식 황우겸 위진록



왼쪽부터 김규홍 황인우 이계진 송현식 위진록 박종세 박찬숙 김상준 윤지영



위진록 회원의 저서 <오래된 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쟁점을 언급한 1부 정치,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를 섬세한 필체로 다룬 2부 문화/사회,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고찰한 3부 일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조국을 떠나 일본과 미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자의 특별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의 국내외 정치 상황과 문화 예술을 진단하는 장장 70년간의 출장에서 완성한 보고서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1950년 11월, 한 달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자리한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로 출장을 갔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戰勢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출장은 무기한 연장되었다. 그렇게 도쿄에서 8년, 오키나와 사령부에서 14년을 근무하고 1972년 미국으로 이민 가 LA에서 지내면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한시도 놓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이종태 회원, 이삼평연구회 회장으로서 정기 총회 주관

시민 도자기 체험 학술 세미나 개최, 아리타 도자기축제 참가 예정



이종태(전 KBS) 회원이 이삼평연구회 회장으로서 2월 4일 공주대학교에서 신년 하례회와 정기 총회를 주관했다. 계룡산 기슭에 살던 이삼평李參平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끌려가 세계적인 명성의 아리타 자기를 탄생시킨 인물이다. 공주시가 2020년 문화의 달 10월의 역사 인물로 이삼평을 선정함에 따라, 이삼평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 도자기 체험과 현다완, 현다레 행사와 학술 세미나 등을 펼치고, 5월 초 일본 아리타에서 개최하는 404주년 도자기 축제와 도조제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종태 회원은 1970년부터 2008년까지 KBS 근무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송대학교가 중국 난징에 설립한 한국어교육원 원장을 지냈다. 2010년 공주 고도古都육성아카데미 수료 후 2013년부터 이삼평연구회 회장을 맡아 왔고, 2017년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정책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연미(전 KBS)

신문방송언론인협회로부터 인재양성과 사회공헌 부문 상 수상



2월 27일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위원장 김준원)로부터 '올해의 방송인' 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 부문 상을 받았다. 성연미 회원은 1985년 KBS에 입사해 춘천에서 근무했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PD로 활동했다. 그리고 2000년 인터넷방송 SOREA 기획팀 팀장을 거쳐 2002년 봄은아나운서아카데미를 설립해 많은 방송인을 배출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윤지영(전 SBS)

<미쓰백> 제작 팀 일원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표창 받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회원이자 영화 <미쓰백> 제작 팀의 일원으로서 작년 세밑에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문화예술진흥 표창을 받았다. 윤지영 회원이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문화예술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홍은철(전 MBC)

프리랜서로 도약하기 위해 웅빈이엔에스와 계약



1월 16일, 프리랜서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연예 기획사 웅빈이엔에스와 계약했다. 1985년 입사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영화 프로그램 <출발! 비디오여행>을 진행한 홍은철 회원은 2016년 프리랜서 선언 이후 영화 전문 진행자로 활동했으며, MBN 드라마 <레벨업>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재용(전 MBC)

정화예술대 초빙교수로 미디어융합본부장 맡아



3월 2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정화예술대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방송·영상 공연예술, 실용음악학부 등을 총괄하는 미디어융합본부장을 맡았다.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지낸 이재용 회원은 1992년 입사해 <생방송 화제집중> <불만제로> <아주 특별한 아침> 등을 진행하고 2018년 퇴사했다. 작년 2월부터 채널A <행복한 아침> MC 활동하며 11월에 권영찬닷컴에 스타 강사로 영입되었고, 최근 MBN <모던 패밀리>에 출연하며 가정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임성민(전 KBS)

미국 뉴욕에서 아시안 배우로 새 길 개척 중



2019년 12월 19일 KBS <아침마당>에 서강대에서 영화 제작을 지도하는 미국인 남편 마이클 영거 교수와 함께 출연해, 미국 뉴욕에서 아시안 배우로 새 길을 개척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임성민 회원은 2018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보히미아 매니지먼트사, 안드레아디스 탤런트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광고모델도 겸하고 있다.

유지현(전 SBS)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인명사전 '후즈 후' 등재



방송·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국제대회 등에서 브로드캐스트, 저널리즘, 국제 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약해 2019-2020 'Who's Who'에 등재되었다. 1898년 설립한 The Marquis Who's Who in America는 이듬해부터 매년 각 분야 전문가와 주목할 만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이다.

오유경(전 KBS)

프리랜서로서 국회방송 <오유경의 인생 책방> 진행



올 1월 아나운서2부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2월 7일부터 국회방송 NATV <오유경의 인생 책방>을 진행하고 있다. 오유경 회원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입사해 <국악 한마당> <6시 내고향> <시사 투나잇> <소비자 고발> <생로병사의 비밀> <아침마당> 등을 진행했다.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을 거쳐 2007년 1년간 미국 메릴랜드대 초빙연구원을 지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류 추진단에 파견되어 한류 문화 전파 위해 K-wave 편집장에 이어 한류 플랫폼 수출을 위해 설립한 사내 기업 KBS에이브 대표를 역임했다.

박혜진(전 MBC)

jtbc 심층 뉴스 프로그램 <사건반장> 맡아



전임 박성준 아나운서가 정계로 진출함에 따라, 2월 28일부터 jtbc 심층 뉴스 프로그램 <사건반장> MC를 맡고 있다. 박혜진 회원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며 TV <뉴스데스크> <생방송 화제 집중>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등을 맡았고, 프리랜서로서 EBS 라디오 <토요 인문학 콘서트> YTN 라이프 <생각이 바뀌는 의자> 채널 A <외부자들> 등을 진행했다.

김환(전 SBS)

YTN 사이언스 <고쳐듀오> MC로서 망치질 하며 구슬땀 흘려



YTN 사이언스 <고쳐듀오> MC를 맡았다. 지난 1월 28일(화) 밤 10시에 첫 방송한 <고쳐듀오>는 국내 최초의 리얼 수선 예능 프로그램이다. 김환 회원과 함께 '과학은 놀이'라고 강조하는 과학 교사 최원석, 시골 맥가이버 유튜버 이석찬이 방방곡곡을 누비며 손 못 대고 방치한 것들을 고쳐주고 있다.

김민정(전 KBS)

프리랜서로 첫 발, MBN <닥터 셰프> MC 맡아



3월 2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 MBN <닥터 셰프> MC를 맡았다. 서경석, 차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는 <닥터 셰프>는 연예인 출연자의 건강 상태 검진 뒤 의사와 요리사가 팀을 꾸려 대결하는 건강 예능 프로그램이다. 김민정 회원(사진 왼쪽)은 2011년 KBS 38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9> 앵커로 활약했다. 2016년 동기인 조충현 아나운서와 결혼했고, 지난 연말 함께 퇴사했다.

방 | 송 | 가 | 소 | 식



아나운서실 인사, 이형걸 실장 신윤주 2부장 발령



2월 25일 인사 이동으로 2018년부터 아나운서실을 이끌어온 김현태 실장 후임으로 이형걸 아나운서가 실장으로 승진했다. 다음날 김홍성 부장의 뒤를 이어 신윤주 아나운서가 2부장으로 승진했다.

이형걸 실장은 고려대 노문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입사해 뉴스와 <6시 내고향> <러브 인 아시아> <긴급출동 24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춘천 근무 후 KBS 이사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신윤주 부장은 한국의국어대 한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입사해 <특종 비디오 저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문화스페셜> <책 읽는 밤> 등을 진행했고, 채프먼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제작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상호, 정세진에 이어 <저널리즘토크쇼J> 시즌2 MC 맡아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원정 아나운서가 작년 11월 22일 첫 방송한 <정치합시다>의 MC로 활약 중이고, 정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저널리즘토크쇼J>는 2월 6일부터 이상호 아나운서(사진)와 함께 시즌2를 시작했다.



황정민, <뮤직쇼> 맡아 오후의 '라디오 퀸'으로

'라디오 퀸' 황정민 아나운서가 3월 2일부터 KBS 쿨 FM <황정민의 뮤직쇼> DJ를 맡아 나른한 오후 시간을 깨우고 있다. 황 아나운서는 19년 동안 매일 아침 <FM 대행진>을 진행하다 2017년 9월 2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해 KBS1 라디오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을 진행했다.



장예원 <씨네타운> <본격 연예 한밤> 투입



장예원 아나운서가 퇴사한 박선영 아나운서 후임으로 <장예원의 씨네타운>과 <본격 연예 한밤>을 맡았다. 이미 <장예원의 오늘같은 밤> 심야 라디오 DJ로 활약했고, 또 <한밤의 TV연예> MC를 맡았던 터라 첫 방송부터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인 장 아나운서는 앞으로 자신만의 색깔로 청취자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윤아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로 방송 복귀

이윤아 아나운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 복귀했다. 동료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은 이윤아 아나운서는 더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호 진행 <뉴스 오늘> 방송 시간 한 시간 앞당겨



지난해 10월 28일 가을 개편으로 5시 10분에 방송되던 <뉴스 오늘>이 1월 28일부터 4시 20분으로 1시간 앞당겨 편성되었다. 방송시간은 기존대로 70분이다. <뉴스 오늘>은 지난 연말 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서 TV 진행상 시사부문상을 수상한 김준호 아나운서가 8년째 진행 중인 토크형 종합 뉴스 프로그램이다.



신년 개편 단행, <오늘 아침>은 손정은 임현주 김정현 박경추 <100분토론>, 신동진 박창현 이영은 뉴스 투입



신년 맞이 개편에 따라, 생방송 <오늘 아침>이 손정은, 임현주, 김정현 아나운서 3MC 체제로 개편되어 평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된다.

박경추 아나운서(사진)가 새롭게 <100분토론> 진행자로 낙점 받았고, 2월 3일부터 신동진 아나운서는 구은영 아나운서와 함께 <5뉴스>, 박창현 아나운서는 <12뉴스>, 이영은 아나운서는 <930뉴스>를 맡았다.

아나운서국, 유튜브 <뉴스 안 하니?> 채널 개설

이진 이재은 김수지 이영은의 일상 소개



MBC 아나운서국이 전종환 아나운서를 주축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 안 하니?>를 개설했다. 이진, 이재은, 김수지, 이영은 아나운서 등 네 명의 출연자가 직접 기획과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매주 화, 금요일에 업로드된다. 2월 18일 첫 예고편에 이어 25일엔 이재은 아나운서가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브이로그(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가 공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김윤주 <12시에 만납시다> 이봉규 <어떤 가요> 맡아



라디오 봄 개편에 따라, 김윤주 아나운서(사진1)가 음악FM에서 정오에 방송되는 <12시에 만납시다>, 이봉규 아나운서(사진2)가 표준FM에서 오후 2시에 방송되는 <이봉규의 어떤 가요> DJ로 발탁되었다. 감성과 에너지가 넘치는 두 아나운서는, 4월 개편부터 청취자 곁을 찾아간다.



(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출범하며 로고 교체

지난 2월 17일, 서울시 산하이던 tbs(대표 이강택)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새 출발했다. 앞으로 새로운 활력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수도권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얼굴 손승희·김상아 아나운서 입사



1월 한 달간 치러진 2020 TBS 공개채용 결과 두 명의 신입 아나운서가 2월 27일 입사했다. 그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던 손승희 아나운서와 함께 새로운 얼굴 김상아 아나운서가 TBS 가족이 되어 신입 사원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곧 방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새벽을 달리고> 신설 등 봄 개편 단행



2월 24일, TBS FM(95.1MHz)이 봄 개편을 단행했다.

<이가희의 러브레터>(평일 21:00~21:43, 사진)와 <달콤한 밤 황진하입니다>(매일 22:06~24:00)가 시간대를 옮겼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지금 우리는 새벽을 달리고>(매일 03:00~05:00)는 황원찬 아나운서가 제작·진행을 맡았다. 주말에는 나선홍 아나운서가 <주말이 좋다 나선홍입니다>(20:06~22:00)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특별생방송 실시 3월 6일 기준 11억여 원 모금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과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 주민을 돕기 위해 3월 2일, 송옥석 아나운서 진행으로 특별 모금 생방송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를 편성했다. 월요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전국 동시 생방송 결과, 3월 6일 기준으로 11억여 원을 모금해 전액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병원과 교회협회, 장애인협회, 기독교 연합회 등에 전달했다. 이후 들어오는 성금은 서울 경기 지역 방역 취약 계층을 위한 위생용품 위문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작년 연말부터 대대적 인사 이동 이용철, 목포 지사장으로 승진



작년 12월 18일, 송옥석 포항 지사장에 이어 19일엔 전북극동방송 이용철 부장(사진)이 목포 지사장으로 승진 전보되었다. 2020년 1월 1일엔 서울 맹주완 편성국장이 부국장급에서 국장, 복직한 부산 차유미 아나운서가 방송부장, 서울 강주연 아나운서가 차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날 서울 언론홍보국 언론보도팀장 김용환과 공연기획팀 양현민, 창원 강세영 아나운서가 서울 편성국, 울산 남현용 아나운서가 방송부에서 편성국으로 이동했고, 목포 김성현 아나운서가 전남동부극동방송 총무부장, 대전 이경 아나운서가 방송부장을 맡았다. 부산 김영보 방송부장이 울산 방송부장, 부산 총무부 이연경 아나운서가 방송부, 대구극동방송 구미본부 최준영 아나운서가 포항 방송부, 대전 편성부 강수미 아나운서가 양육부로 이동했고, 3월 1일자로 대전 김상균 아나운서가 제주 발령을 받았다.



TV <매일 미사> 아나운서들 녹화 참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및 전국 16개 교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천주교회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당을 찾을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매일 미사>가 확대 편성되어 방송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출입자 제한으로 인해 신자들과 함께 녹화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아나운서들이 미사 해설, 독서자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특집 방송 편성 라디오 <사랑으로 함께합시다> TV <신천지, 그들은 누구인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6일까지 라디오에서 <특집, 사랑으로 함께합시다>를 김지현 아나운서 진행으로 방송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불안에 대한 위로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 보았다. 3월 10일엔 '신천지'가 종교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정민 아나운서와 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금재 신부와 대담으로 TV 프로그램 <신천지, 그들은 누구인가>를 방송했다.



신입 김하은, 백다혜 입사



김하은, 백다혜 아나운서가 제9기 jtbc·중앙일보 통합 공개 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2020년 1월 13일부로 아나운서팀의 새 식구가 되었다. 생기 넘치고 밝은 이미지의 김하은 아나운서와 차분하고 단아한 이미지의 백다혜 아나운서는 3개월의 교육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정식으로 방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경진, 실장으로 승진 황남희 송민교, 대내외 업무 맡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퇴사한 박성준 전 팀장에 이어 임경진 아나운서가 아나운서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최고참 선배로 팀장과 팀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신망이 두터웠던 만큼 팀내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황남희 아나운서가 사내 '미운말 신고센터' 등 대내 업무, 송민교 아나운서가 아나운서협회장 등 대외 업무를 맡았다.

BBS 새해 맞아 라디오 부분 개편



2020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부분 개편이 있었다. 활기차고 즐거운 음악으로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장수연 아나운서의 <한낮의 휴식>이 주말까지 정오에 방송되고, 차분한 음악과 함께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녁을 선사하는 최은경 아나운서의 <음악이 흐르는 풍경> 역시 매일 오후 7시부터 만날 수 있다. 이효주 아나운서는 평일 낮 3시, 심도 있고 폭넓은 신행 상담 시간 <지금은 수행 시대>로, 김민영 아나운서는 평일 밤 10시, 힐링 음악 프로그램 <밤의 창가에서>로 청취자와 만나고 있다.



시리즈로 풀어보는 한국어 'ㄴ·ㄹ'의 발음 - 3 'ㄴ·ㄹ'과 관련한 이름의 표기와 발음에 대하여



김상준 (전 KBS 부회장, 언론학 박사)

한국의 신문 방송은 리설주, 리선권, 최룡해를 거의 모두 북한의 표기를 따르고 있다. 한국의 언론은 1988년 1월 19일에 고시한 한글맞춤법에 의해 이설주, 이선권, 최용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낱 자료로만 치부하고 있다.

북한은 두음법칙을 무시하고 'ㄹ'을 초성에서 쓰고 있다. 그러나 표기는 'ㄹ'로 하지만 두음법칙을 적용한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인민방송원 리상벽은 '조선말화술'(1989)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발음'을 제시하고 있다. 래일은 [내일], 로인은 [노인], 로력동원은 [노력동원], 래력은 [내력], 량강도는 [양강도], 력력하다는 [역력하다], 료리는 [요리], 념변은 [영변]으로 발음해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사전은 용마루에서의 용이 룡龍자이지만 '용마루'로 올리고 있다.

둘째 음절에서도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ㄹ'을 묵음으로 인정하는 말이 많이 있다. 북한 사전에서는 규률規律은 [규율]로, 대렬隊列은 [대열]로, 배렬排列은 [배열]로, 치렬齒列, 熾烈은

[치열]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언중言衆의 관용어를 존중하면서 표기와 발음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활자 매체에서는 '리설주, 리선권, 최룡해'로 하더라도, 방송에서의 발음은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이설주, 이선권, 최용해'로 해야 한다.

'ㄹ'을 초성에 쓰지 않는 우리말 두음법칙은 한국어 음성언어적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7월 "성은 혈통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호적에서 유柳씨와 나羅 씨를 '류'나 '라'로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집안에서는 '유'나 '나'로 쓰고 있다.

북한은 외래어의 표기도 철저히 주체성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명, 지명은 한자어 발음을 살리면서 표기하고 있다. 인명으로는 시진핑習近平은 습근평, 덩샤오핑鄧小平은 등소평으로 하고 있다. 지명으로는

엔벤延邊은 연변, 엔지延吉는 연길, 다오위타이釣魚臺는 조어대로 하고 있다. 남한의 이낙연 전 총리는 당연히 리락연으로 하고 있다. 우리 처럼 현지 어 발음을 살리는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ㄴ·ㄹ'과는 무관하지만 외래어 표기와 관련해서 '시저'의 표기에 대한 예를 들어 본다.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B.C.100~B.C.44) 만큼 각국의 언어적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름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저로 쓰고 있으나, 고전 라틴어는 카이사르(Caesar), 영어는 시저(Caesar), 그리스는 카이사로스(Καίσαρ), 독일은 체자르(Cäsar)·카이저(Kaiser), 스페인은 세사르(César), 이탈리아는 체자레(Cesare)로 표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가이사'로 했었다.

외래어 표기법은 물론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도 우리의 언어 주권을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다.



김병래(전 KBS)

• 작가 약력
1969년~2004년 KBS 근무
서울미술관 공모전 특별상
부산비엔날레사상대회 특선 외
전국 미술공모전 특선 다수
한일중견작가전·김해비엔날레 등
국제미술제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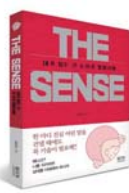


〈산촌의 기쁨〉 40×35 수채화 경북 청도 복숭아 과수원

말 잘하는 아나운서가 글도 잘 쓰네!

KBS 김은성 MBC 신동진 SBS 김주우 CBS 장주희 아나운서가 펴낸 화제의 신간

김은성 자기계발서 「더 센스」 (어나더북스)



KBS 김은성 아나운서가 작년 연말 「THE SENSE - 네가 힘든 건 눈치가 없어서야」를 펴냈다. 대인관계 능력을 좌우하는 눈치 감수성의 의미와 체득법, 질문의 기술, 공감 대화의 핵심 요소 등을 알려주는 한편 수필 형식의 경험담과 센스 제로의 100여 사례로 재미를 보였다.

특히 4가지 유형의 눈치 상황 매트릭스는 유연하면서도 즐거운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구체적인 안목과 지침을 제공한다. 분위기를 친밀도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상황, 완급조절 상황, 미끄러지기 쉬운 상황, 교감이 깊은 상황 등 4가지로 분류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성 아나운서는 경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입사, 현재 ITV <930 뉴스>를 맡고 있다. 경희대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에서 객원교수와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삼성언론상, 한국아나운서대상 앵커상, 한국어문상 등을 수상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에서 10년째 '파워 스피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우 자기계발서 「말 습관 트레이닝」 (길벗)



SBS 김주우 아나운서가 올해 초, 「말 습관 트레이닝」을 펴냈다. 말 습관 때문에 업무 능력보다 저평가되거나 함께 일하기 꺼리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말로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사람들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 전에 '소통'이 잘 되는 동료와 일하기를 원한다. 소통이 잘 되려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말실수를 줄이고, 이 사람과는 얘기가 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말 센스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매일 쓰는 말투나 화법은 장시간 몸에 밴 습관이기에 하루 30분씩 꾸준히 운동하듯 말 습관도 꾸준한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꼭 필요한 20개의 말 습관을 설명하고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훈련하며 진짜 말 습관으로 정착하게 만든다.

김주우 아나운서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에 입사, 현재 파워FM <김주우의 팝스테이션>과 TV <모닝와이드>를 진행 중이다. 2007년 전국 대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수상 등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며, 2018년 아나운서 대상 라디오 진행상 음악부분을 수상했다.

신동진 수필집 「어머니」 (문학의 문학)



MBC 신동진 아나운서가 올 2월, 첫 수필집 「어머니 - 그토록 오래고 아름다운 이름」을 펴냈다. 2015년 1월 MBC 파업 중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사모곡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4남매를 키워낸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자는 당신과 공유했던 모든 시간과 감정을 하나하나 떠올린다. 유년 시절, 중고등 시절, 대입과 군대 시절, 그리고 아나운서 입사 후의 삶들을 따라가다 보면, 씩씩하면서도 다정다감한 그의 품성도 바로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진정성이 담긴 소박한 글 속에는 삶과 사회에 대한 유연하고 성숙한 시각도 담겨 있다. 파업 기간 아나운서라는 이름 뒤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적지 않았지만, 좌절과 원망보다 극복과 희망을 보며 동료와 이웃을 믿는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좋아하는 말이 균형감각, 통찰력, 그리고 어머니』라는 신동진 아나운서는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입사, 현재 MBC <5시 뉴스>를 맡고 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과 한국외국어대, 경희사이버대, 한세대 등에서 겸임교수를 지냈고,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장주희 설교 안내서 <들리는 설교> (이튼비)



CBS 장주희 아나운서가 작년 연말, 목회자들을 위한 책, <들리는 설교>를 펴냈다. 아나운서 경험과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KPC)로서 심리학과 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말씀은 선포이자 소통이며, 내용이나 메시지만큼 전달 방법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방송을 하며 많은 목회자를 만난 그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느끼는 은혜와 함께 남모르게 지닌 고충들을 듣게 된다. 이에 '잘 들리는 말'로 말씀을 전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전문 분야인 말과 설교를 연결해 코칭을 시작했고, 그 내용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설교에서 어려운 점을 짚어보고 전달의 측면에서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장주희 아나운서는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입사, 현재 설교의 모범을 보여주는 TV <올포원>과 저녁의 심터인 음악 방송 <오늘 하루 장주희>를 진행하고 있다. 아나운서부장, 홍보팀장을 지냈고 원광대에서 미술 치료 석사학위를 받았다.